

* 동남아시아의 * * 原子力 開發 *

電力의 安定供給과 產業化으로의 飛躍을 図謀

企劃室

自由中國

아시아地域에서 韓國에 다음으로 가는 開發計劃을 세우고 있는 自由中國, 이미 總發電 設備容量中 16%以上을 原發(原子力發電所의 略)이 占하고 있다. 2000年까지에는 그 비율을 30%로 목표를 삼고 있는데, 그려니, 좁은国土 3.6万平方킬로미터에서는 사이트問題가 큰 애로가 되고 있다.

第二次炉型 選択을 서두르고 있다.

自由中國에서의 原子力委員會의 役割은 「原子力開發의 原則를 決定하는 機關」이며 「美國의 旧AEC(原子力委員會)와 日本의 通產省과 같은 役割」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爐의 타입 - 輕水爐나 增殖峽路線으로 가는가를 決定하나, 같은 輕水爐에서도 PWR나 BWR나의 選択은 電力会社의 選択에 맡기고 있다. 즉, 原則를 決定하는 機関이다.

앞으로의 炉型選択에 対해서는 뒷카링의 事故(74년 燃料채널에 크랙發生)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CANDU는 고려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炉型을 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西獨의 輕水爐도 고려하고 있다. 自由中國의 原子力委員會에서는 同국의 일곱번째와 어덟번째의 炉型을 早急히 決定하지 않으면 自給배런스가 무너진다

고 생각하고 있으며, 近間 第二次開發計劃의概要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때까지도 開發의 開發을 계속해 왔으며 原子爐에 이커들도 근래에 와서는 活発히 움직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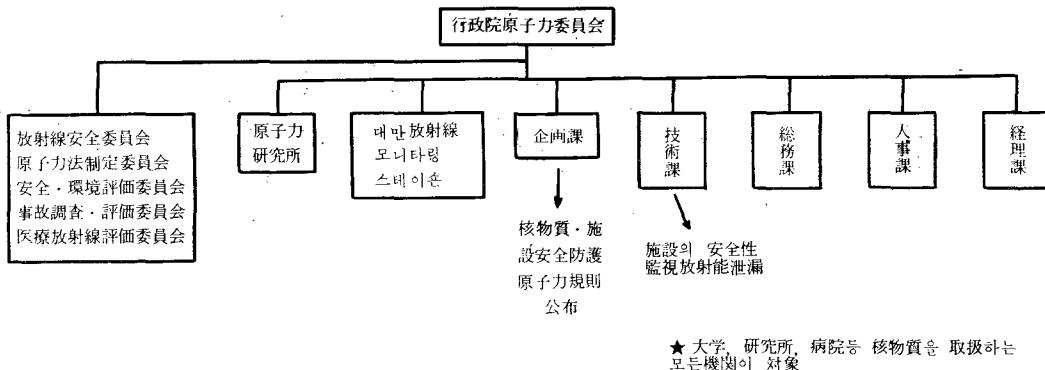
2000年까지의 展望으로서는 原發을 20基 완성시켜 總發電設備容量의 30%를 原子力에, 나머지를 石炭30%, 石油30%로 할 예정이다.

또 原子爐의 規模는 100万 kw以内의 것을 선택하며 베이스·로오드用으로서 安定하게 供給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방사선이용 研究는 原子力委員會와 台北의 清華大學에서 하고 있으며, 이미 목재·플라스틱과 밀감의 害虫予防에서는 商業規模에서 実施되고 있으며 또한 成果도 올리고 있다. 食品照射는 實驗中이며 라이센스의 發給은 아직 없다.

原子力委員會는 5名으로 構成되고 조직으로서는 院의 아래에 있는 省과 같은 레벨이다. 規制에 関해서는 미국의 NRC의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다.

原子科学院은 63年에 設置되었고 每年 35~40名을 卒業시키고 있다. 穩士課程의 卒業生은 15~20名 정도이다. 原子科学院에는 아직 博士과정은 없다.



「2000年까지는 20基」

原子力開発의 進展에 따라 台灣電力会社는 原子力關係스태프만도 이미 182名, 스태프는 계속 늘고 있다.

台灣電力은 第一次原発計劃에서 6基의 原發建設에着手하였으나 이미 2基가 運開하고 4基가 建設中이다. 각 原發은 2基가 페어로 되어 있고 사이트는 3個所 있다.

친산의 原發은 KwH당 0.2元(原35밀)로서 운전하고 있다고 한다.

第二次 原發計劃에서는 6基의 原發建設을 고려하고 있고 그의 標準化도 檢討하고 있다. 사이트에서는 이미 운전·건설하고 있는 사이트에 각 2基씩 追加할 予定이다. 約

2000년까지 20基로 하기 위해 나머지 8基를 건설할 예정인데 立地確保에 많은 問題를 안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건설될 原發의 炉型에 대해서는 하아드웨어는 세계의 어느것이나 같으므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의 基本적으로入手를 고려하고 있으며 自主開発도 진지하게 고려중이다.

自由中国의 電源構成

(單位 : F kw, %)

설비	年	1978	1983	1989
水 力		139.2 (18.1)	170.8 (14.3)	310.7 (12.5)
火 力		501.9 (65.3)	815.1 (61.3)	1,424.3 (572)
原 子 力		127.2 (16.6)	324.2 (24.4)	754.4 (30.3)
合 計 (%)		768.3 (100.0)	1,330.1 (100.0)	2,489.4 (100.0)

順調롭게稼動되고 있는 친산 1, 2호

自由中国에서 最初로 建設된 친산原發 1, 2号機(모두 BWR, 63万6千kw)中 1号機는 7月 7日에 콘센서의 리아크를 수리했는데 23時間으로 完了하였다고 한다. 中央制御室의 運転要員은 4名으로서 3交代, 4 그룹으로 조직되고 있다. 78年6月의 商業運開以来의 事故는 里정도의 작은 고장이 몇개뿐이였다고 한다. 安全性에 대해서는 충분한 注意를 하면서 운전하고 있다고 한다.

1号機는 18개월의 運開에서 生긴 폐기물은 드럼로서 약 44本이며 저장 푸울은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한다.

建設進捗率 70%, 50%

쿠오센 1, 2号

이것들은 친산原發에서 멀지 않은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1号機는 이미 70%, 2号機는 50%의 進捗率로서 건설은 준조롭다. 여기는 다시 第二次 原發計劃中 2基가 들어설 예정이다.

필리핀

* 公聽會 열리다 *

原發 1号 建設中斷 安全確認中

連日, 原発이 톱 뉴우스

마대統領 建設中止 命令

마르코스大統領은 6月 15일, 바타안半島에 건설中인 필리핀 최초의 原発建設工事を 原発의 安全性이 確認될 때까지 一時 中止하도록 命令하고 安全性調査特別委員會를 創設하여 暫定国会小數派(野黨)의 라갈드 푸노議員을 委員長으로 任命하고 이와함께 로렌소 타니아다 前上院 議員을 共同委員長으로해서 早急히 原発의 安全性에 관하는 檄文를 행하도록 命令하였다.

대통령의 건설一時停止 命令以来 필리핀에서는 連日 原発문제가 뉴스의 톱을 장식했으며 관계자가 注目하는 가운데서 公聽会가 開催되었다.

第5回公聽会가 7月 5일 필리핀·인터내셔널 콘벤션·센터에서 開催되었다.

炉解体의 安全性 問題를 討議

第5回 公聽会

公聽会는, 安全性調査特別委員會의 푸노 議員을 議長으로 合計 5名이 필리핀側 委員이 出席하고 WH社側에서 3人の 証人이 出席하였다.

이외에 필리핀 国營電力公社(NPC)부터 로베라노스社長外 5名이 出席. 一般에서 約 60名이 참석하였다.

이날 푸노議長은 필리핀에서 건설中인 軽水炉와 他의 炉型의 差異點과 原子炉解体, 트리마일 아일랜드(TMI) 원발에서의 氣泡等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炉型의 차이에서는 増殖炉에 대해서 質問이 集中하였고, WH社側은 「이와같은 타입의 炉는 減速材가 없고 高速中性子 그대로 連鎖反應을 시키므로 우라늄-235보다 새로나오는 프루토늄……」 등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解體費는 누가 부담하느냐, 해체방법으로서는 「防護저장, 埋設, 철거」등의 3 가지가 있으나 어느方法이 좋으냐 그후에도 安全할까… 原子炉解体문제에서는 議長은 상당히 어렵게 질문하였고 WH社側이 오히려 答에 窮한 장면도 있었다고 한다.

그 後 TMI原發事故의 氣泡에 대한 質問이 있

었는데 WH側은 「氣泡의 發生의 眞偽에 関해서는 現時点에서도 의견이 나누어져 있어서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라고 答하였다.

発電사이트의 問題點指摘

PNPP 1号機

마대統領의 1号機(PNPP) 건설一時停止 命令以来 여러 가지의 여측이 나돌았다.

WH社가 事前에 原發建設發注를 위해 多額의 資金을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것이 美議會에서 公表된 바에 대해 대통령의 不滿이 폭발했다는 등의 報導도 있었던 것 같으며 현지의 관계자들은 「이件은 이미 決定이 났었다」라고도 하였다고 한다.

이번의 문제는 TMI原發에 端을 發한 安全性의 문제が 中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대통령의 의문도 「만약 TMI와 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필리핀의 原子力關係者는 충분히 사고에 対応할 수 있을까」등의 安全性에 関하는 기본적인 것에 集中하고 있다고 한다.

이Point에 대해서 WH社側은 「최악의 경우 이미 충분한 운전경험이 있는 韓國, 日本, 自由中國 등의 이웃의 原子力技術者의 協力を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해답을 하고 있다. 그러나 現地의 신문들은 「緊急時に 이웃나라로부터 技術者를 불러올 시간이 있을까」라는 등 정세는 엄하다.

여기에는 덧붙여서 건설中의 1号機부터 16km의 곳에 나☶山(活火山)이 있고 地震도 잦다고 한다. 서쪽은 東支那海에 接하고 있으나 74年에 海溢이 있어서 海岸에 따른 마을들이 파괴된 일이 있다고 한다.

建設推進側이 여러 가지의 문제에 直面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関係者들은 앞으로의 展望에 대해 「原發을 스크립하자는 의견과 冷却기간을 두고 건설하자는 의견은 半半이다」라고도 한다.

필리핀의 電原構成

(万kw, %)

설비	1978年	1983年	1988年
水力	74.6(23.6)	194.2(31.8)	379.1(39.5)
地熱	0.3(0.1)	56.2(9.2)	89.2(9.3)
火力	241.6(76.3)	313.6(51.4)	297.0(30.9)
石炭	-(-)	46.5(7.6)	132.5(13.8)
原子力	-(-)	-(-)	★62.0(6.5)
合計	316.5(100.0)	610.5(100.0)	959.8(100.0)

타이랜드

89年原発完成目標로 環境調査를 実施中

타이랜드는 아직은 原発建設에 着手는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10年前부터 原発計画이 시작되었으며 IAEA의 전문가를 불러 예비적인 사이트調査를 行하는 등의 活動을 하고 있다. 사이트는, 방코크南東120km의 반·아오·후아이·타이灣에 面해 있고 海水浴場으로서 유명한 곳이다. 현재 行해지고 있는 또 거의 끝난 調査는 主로 ① 사이트周辺120平方km圈內의 海洋生物의 서식分布 ② 温排水의 영향 ③ 热拡散의 수학적 解析 ④ 気象学·海洋学的調査 ⑤ 放射能의 백그라운드의 測定등 기초적 조사라는 것이다.

사이트 予定地周辺은 「有名한 굴의 產地」, 특히 굴에의 영향조사는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原発計画에 대해서는 이미 環太平洋會議 등에서 발표된 「1986年에 60万kw 2基」보다도 늦어질 것 같으며 「89年境에 90万kw線」을 完成시킬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라늄資源에 대해서는 「아직은 調査가 충분치 않으며 앞으로의 문제이다」라 하며 천마이地方에 우라늄鉱床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大規模 原発로서 予備調査를 実施中

우라늄과 石油資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그러나 石油는 앞으로 20-30年 정도에서 없어진다는

천망도 있어서 石油를 輸出商品으로, 代替에 너지로서 大規模의 原子力発電所를 가지려는 생각이 있다.

그러나 77年末 현재까지 地方에서의 디젤發電을 加하드라도 総發電設備容量으로 150万kw, 送電網이 充分하게 完備되어 있지 않아 實行은 어려울 것 같다.

2000年까지 タスク후오스設置 7基

서울인 자칼타에서 20分정도의 곳에 인도네시아 国營電力会社(PLN)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이탈리아의 NIRA(原子炉의 연구 설계를 中心으로 한 綜合技術会社)를 콘설턴트 會社로서 定하고 자바섬의 2地点(무지아와 래샘)에서 사이트의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PLN의 속에는 ① 경제성 ② 炉工学 ③ 사이트 ④ 資金의 4개의 타스크·후오스를 설치해서 검토를 개시한 단계이며 예비적 연구는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원발에 関해서는 97年~98年에 걸쳐 120万kw級 2基를 건설하고 2000年度까지는 合計 7基를 完成시키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 「有望한 우라늄을 背景으로 CANDU 炉도 검토하고 있다. 具体的인 조사·검토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예비조사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의 電源構成

(万 kw, %)

設備	1977年	1985年	2000年
火 力	109.5 (72.8)	182.5 (75.7)	石炭, 火力 40×2基 을追加(96年까지) 40×2基 (96年以降) 60×2基 80×8基
水 力	410.0 (27.2)	155.0 (24.3)	60×2基 80×8基
原子力	"	"	130×7基
合 計	150.5 (100.0)	637.5 (100.0)	3430~4290

